반갑다! 은행들 고금리 적금

메트로 2014년 6월 17일 화요일 제2814호 www.metroseoul.co.kr

싸이, 러시아전 거리응원 공연

이통사 이색 월드컵서비스 '눈길'

SK	1만 명에 모닝 콜
KT	사진 올리면 경품
LG	동시 多경기 시청
포털	하이라이트 영상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브라질 월드컵 H조 첫 경기가 열리는 18일 오전 7시. 이날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경기와 출근 시간대가 정확히 겹치면서 '월드컵 출근족'을 붙잡기 위한 업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통신사별 이색 월드컵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와 함께 선착순 1만명에게 모닝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브라질 시차 문제로 우리나라 경기가 매번 꼭두 아침에 열리는 점을 고려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기 시작 30분 전에 유명 방송인의 목소리로 아침을 열 수 있다.

KT는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후원사답게 가장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30일까지 KT 스포츠 홈페이지에 재미있는 축구 사진을 올리면 월드컵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월드컵 기간 중에 국제전화 001을 이용한 고객은 추첨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얻는다.

LG유플러스는 박지성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U+HDTV를 홍보 중이다. 이 서비스는 26개 채널의 생방송을 최대 2시간까지 돌려볼 수 있는 타임머신과 주요 장면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월드컵 시즌을 공략한다. 멀티뷰 기능을 이용하면 같은 시간에 열리는 경기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은 개성 넘치는 월드컵 중계를 선보인다. 아프리카TV는 미모의 해설자가 진행하는 월드컵 중계와 먹으면서 보는 먹방 중계로 지상파에서 볼 수 없는 월드컵 방송을 준비했다. 우리나라 팀을 집중적으로 응원하는 편파 방송도 열린다. 이밖에 유행어 '의리'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연예인 김보성과의 고깃집 월드컵 응원 이벤트도 눈에 띈다. 이벤트에 당첨되면 월드컵을 보며 아침 식사까지 해결한 뒤 출근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지상파 N스크린 푹 등에서도 월드컵 생중계와 하이라이트 영상을 서비스한다. 다만 이번 월드컵 경기는 모바일 IPTV로는 시청이 어렵게 됐다. 월드컵 중계권료 문제로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가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사적으로 직장인들의 모바일 DMB와 인터넷 방송 이용률은 급증할 전망이다.

러시아전 앞둔 태극전사 "해충 싫어요" 러시아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18일 오전 7시)을 앞둔 김신욱, 손흥민 등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6일 브라질 쿠이아바의 마투그로수 연방 대학(UFMT) 경기장에서 훈련에 나서며 해충기피제를 다리에 뿌리고 있다. <관련기사 22·23면> /쿠이아바=연합뉴스

"러시아전 출근족을 잡아라"…발빠른 홍보전 경쟁

러시아전과 출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통신사들은 데이터 폭주 대응을 위한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4월부터 통신3사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이미 급증한 상황이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 지하철 모바일 이용량은 평균보다 30~50%까지 올라간다. 통신사들은 통신 장애에 대비해 주요 환승역과 도심 지하철역 등에 이동기지국과 트래픽 분산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월드컵은 영업정지를 겪은 통신사들의 이미지 회복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말 LG유플러스 통화 장애, 지난 봄 KT 고객 정보 대량 유출과 SK텔레콤 대규모 통신 장애 문제로 추락한 기업 신뢰도를 만회할 수도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러시아전은 출근 시간과 겹쳐 데이터 접속 등 각종 서비스 이용률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와 알제리전은 23일 오전 4시, 벨기에전은 27일 오전 5시라 경기 시간이 출근 피크 시간과 멀다. 때문에 러시아전은 통신사의 모바일 트래픽 대응 실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통신 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전국 버스·지하철 교통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지하철, 시내버스, 철도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은 물론, 기차와 시외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 고속도로 통행요금 결제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부산을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던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대전과 강원, 광주, 대구 지역은 시스템 문제로 개통까지 2~3개월가량 더 걸릴 전망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충전해서 쓰는 선불형 카드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교통카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택시·편의점 결제 기능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국 시내버스·지하철호환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기차, 시외 고속버스 승차권과 고속도로 통행요금까지 결제할 수 있다. 시외 고속버스 호환은 현재 일부 노선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전국 확대는 연말께 이뤄진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존 교통카드는 앞으로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3년 뒤부터 자연스럽게 기존 카드가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준기자 mjkim@

2014브라질월드컵 특별판 오늘 저녁 지하철역, 18일 광화문광장 등 거리응원 장소에서 배포합니다

김정은 잠수함부대 시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함대사령부 예하 잠수함 부대인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운항 중인 잠수함에 직접 탑승했다. /노동신문

더 끓어오르는 '문창극 논란'

새누리 이재오 의원 "말어붙일 것 아니다" 반발…오늘 임명동의안 제출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을 하루 앞둔 16일 과거 발언과 칼럼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문 후보자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인 시절 한 일"이라며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을 했다. 하지만 야권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에 "그것은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다"고 답해 논란을 부추겼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한 엄중한 총리 후보를 감싸지고 지키는 건 국민 정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지명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지금까지 밝혀진 발언만으로 이미 판단이 끝났다. (임명 강행은)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본에서 쌍수 들고 환영하는 사람을 총리 시키겠다는 건 박근혜정권이 아직도 식민사관의 연장에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 총리를 뽑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에서 조차 반발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여권을 향해 "다수 국민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더 이상 어지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될 일을 갖고 시간을 끌수록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에 보장된 청문 절차와 과정에 서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청문회 과정에서의 적격·부적격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준기자 exkim@metroseoul.co.kr

예고됐던 '한남더힐' 임대아파트 갈등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고급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둘러싼 고유층 감정평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시행사와 입주민이 갈등을 빚으며 시작됐던 이번 논란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입주민 측이 각각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내놓은 아파트 감정가격 차이가 최대 50억7055만원이나 벌어져 논란을 빚자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의 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양측 감정가격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결과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갈등이 감정평가업계로 확산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갈등은 '한남더힐' 분양 당시부터 예고돼 왔다는 점에서 매우 소모적이라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었던 다툼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남더힐'은 임대아파트로 불리지만 3.3㎡당 평균 임대보증금이 2350만원 선에 이르는 고급 주택이다.

3.3㎡당 3000만원에 분양하려던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2000만원에 공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피하고자 민영 임대아파트로 돌렸고, 당시에도 편법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입주 2년 6개월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다 가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만약 편법 논란이 있었던 당시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가격 기준이 있었다면 지금의 '한남더힐'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터다. 또 감정평가업계가 신뢰에 타격을 입는 일도 없었을 게다. 지금도 늦지 않다. 체계적인 법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朴 대통령 해외순방에 첫 동행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동행하는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셋째)이 16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광용 수석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제자 요청 있었고, 논문 지도해 1저자로 들어갔다"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서울교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문은 송 수석이 2004년 12월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심할 분석'이다.

이 보다 4개월 앞서 송 수석의 제자 김모씨는 '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이란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송 수석에게 제출했다.

두 논문은 소제목만 다를 뿐 51개 문장이 동일했으며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169개나 달했다. 또 참고 문헌이나 참고 사이트 등도 김씨의 논문과 같았다. 송 수석의 논문에는 송 수석이 제1저자, 김씨가 제2저자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07년 마련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용 표시 없이 6개 이상 동일한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될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당연히 제자가 논문을 쓴 것이니 제자를 제1저자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자의 요청이 있었고, 당시 논문 제목도 제가 주는 등 실질적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이 1저자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뉴스&뉴스

새누리, 이방호 전 의원 재입당 의결

● 새누리당은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재입당을 16일 승인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사무총장의 재입당안을 의결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16·17대 의원을 지낸 이 전 사무총장은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친이계 핵심 인사다.

독도 근해서 구조된 北 선원 5명 송환

● 독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어민 5명이 16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선원 5명은 본인들 의사를 존중해 전원 북측으로 인계키로 하고 오늘 오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오후 4시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북측도 이에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미·중 이어 18일 한러 6자회담

●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의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미국(2일), 중국(10일)과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한러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 전대 대진표 확정…9명 출마

새누리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16일 사실상 완성됐다.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양강을 형성한 서청원, 김무성 의원과 이인제, 김영우, 김을동, 김태호, 김상민 의원, 이번 주 선언을 앞둔 박창달 전 의원까지 전당대회 출마자는 모두 9명이 됐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1인 2표제다. 1표는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계파 출신 후보에 던져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표의 향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당원 유권자 중 10%를 넘게 차지하는 대구·경북(TK) 표심도 전당대회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 변수로 꼽힌다.

김무성 의원은 앞으로 2주 동안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당원과 접촉할 예정이다. 이인제·김태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충청·영남권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주력한다. /조현정기자

“우린 월급쟁이 사장일 뿐”

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변기춘 등 일부 혐의 부인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동시에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나머지 피고인 7명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 천해지 대표, 고창환 세모 대표,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다.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오 대표 측 변호인은 "계열사 자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변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 중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와 김 이사 등의 변호인은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례적으로 15분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30일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다음달 9일부터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계획이다.

송 대표 등 8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1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illegible]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1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홍보관에 전자발찌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상습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19일부터 개정법 시행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강도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1885명이며 강도범이 추가되면 올해 말까지 2600명,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illegible]기자

호미로 파낸 송전탑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열린 '밀양·청도 송전탑 철회대책위 항의 기자회견'에서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모형을 호미로 파내 쓰러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의료법 위반으로 복지부 고발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위법성 지적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이하 민변 공공의료팀)은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정부의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정책의 문제점과 비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는 병원의 영리 목적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에 공개적인 비판을 가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부대사업을 유발해 병원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높아지고 병원의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송기호 민변 공공의료팀 변호사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대사업 회사 설립을 허용하거나 금지시킬 법률적 권한은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복지부와 법제처에 공개 질의를 요청했다. /[illegible]기자

박상은 ‘불법 정치자금’ 논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지난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씨가 각종 서류와 현금 2000만원 등이 담긴 박 의원의 가방을 검사실로 직접 가져와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 측은 1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해 내사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illegible]기자

“오염 수돗물을 마셨다니…”

LH 소홀 6개월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 소홀로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부 주민에게 6개월간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러한 내용을 적발, LH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LH는 2012년 12월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부 구역(A2블록)에 주민 입주 시작 후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관련 지침을 위반,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 준공 전에 수도 등의 공용시설을 개시하려면 시설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으로 안전성 등을 검사해야 했지만 LH는 이를 생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A2블록에서 측정한 수돗물의 탁도가 기준(0.5NTU-혼탁도 측정단위)의 7.7배에 달하는 3.85NTU에 달해 아파트 주민이 수돗물 이용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illegible]기자

다문화 가정 건강관리 사업

서울시 강서구가 서울시 최초로 '다문화 출산 가정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 간호사 2명이 직접 찾아간다. 이들은 산모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식습관 유지법 등을 전달한다.

장난감 나눔 바자회 개최

서울시 관악구가 오는 21일 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장난감 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바자회는 장난감 등 육아 용품을 이웃과 공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코엑스앞서 월드컵 응원

서울시 강남구가 브라질 월드컵 기간 영동대로 코엑스 앞에서 거리 응원전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영동대로 총 530m 구간에 달하는 거리에 총 4개의 스테이지를 구성, 응원 장소 어디에서나 경기 장면을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다.

시각장애아동지원 도서관 건립

하트하트재단은 14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함께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착한도서관'을 강원명진학교에 건립했다.

착한도서관은 4월 청주성신학교에 건립한 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졌다.

이번에 마련된 도서관은 학계의 도움으로 보다 전문적인 시각장애인용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학습보조기기 외에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착한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소설·영화·명화 등의 오디오 콘텐츠도 마련됐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임직원 3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도서관에 필요한 책장·책상·걸상 등을 직접 만들고 타일 벽화를 꾸미는 등의 도서관 미관 정비 작업도 진행됐다.

(왼쪽부터)배우 박서준, 하트하트재단 신은숙 이사장,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아제이 칸왈 행장, 강원명진학교 박홍식 교장, 강원명진학교 학생들 /하트하트재단 제공

오씨 생각 뜸부기 강릉서 발견 동요 '오빠 생각'에 등장하는 희귀 여름철새 뜸부기(천연기념물 제446호)가 16일 강원 강릉시 농촌의 마을에서 관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화상 수업 확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학과가 교수와 재학생 간 학문적 교류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학생 학습과 작품활동 지도를 위해 온라인 실시간 화상 수업을 확대하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화상 시스템에 접속해 문예창작 등과 관련된 이론 및 토론 수업 등을 진행한다.

브라질 아티스트 특강

서울여자대학교는 최근 교내 조형예술관에서 브라질 아티스트 안드레 마시엘을 초청해 '브라질 현대미술의 흐름' 특강을 개최했다.

세미나를 들은 학생들은 글로벌 작가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작업 활동에 큰 모티브를 얻고, 중남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KTX 인천공항까지 직행

부산서 3시간30분이면 도착

오는 30일부터 부산이나 광주 등에서도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별도의 환승 없이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까지 KTX를 이용해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KTX가 인천국제공항역 외에 검암역에도 정차함에 따라 인천 지역에서도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나오지 않고 KTX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KTX는 경부선 12회, 호남선 4회, 전라선과 경전선이 각각 2회씩, 1일 총 20회(상행 10회, 하행 10회)다. KTX 운행시간표는 항공기 이착륙 빈도 등을 고려해 편성됐다.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약 47분 걸린다. 부산역에서는 약 3시간30분, 목포역에서는 약 4시간30분이 소요된다. 향후 서울역 북부 선경개량사업이 완료(2015년 말 예상)되고 경부선 2단계(2015년 상반기 예상)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2015년 상반기 예상)되면 인천국제공항역까지의 소요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역까지의 KTX 운임은 환승불편 해소에 따른 편익과 공항리무진 버스 등 타 교통수단의 운임 등을 고려해 서울역에서는 1만2500원, 용산역에서는 1만2800원이 책정되었다. KTX 승차권은 17일부터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 역 창구 등에서 예약 발권이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5월 일부터 하루 왕복 3회의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철저한 영업시운전을 통해 KTX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KTX의 인천국제공항 운행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인천국제공항~평창까지의 KTX 운행에 첫 관문을 열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용마에기자 fomar6@metroseoul.co.kr

30일부터 KTX가 인천국제공항역까지 하루 20회 운행된다. 검암역에 정차해 있는 KTX. /코레일 제공

연예흥행비자 이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책 개선안 마련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예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민에 대한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예술단 노동착취 사건' 이후 관련 실태 조사 입찰 공고를 냈으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해 재입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연구용역 기간은 5개월이다.

법무부 출입국 조사 결과 2013년 연예흥행비자 발급자는 4368명으로 남성은 1948명, 여성은 2420명. 이들을 포함해 E-6 소지 이주민은 49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매매에 시달리는가 하면 연예기획사의 노동착취에도 내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예흥행비자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황다비기자

법무부 직원 길에서 성추행

"술 마시자" 요구 몸 만져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 서모(34)씨가 길에서 20대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씨가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A(여)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A씨의 남자친구가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나와 제지했지만 서씨는 몸싸움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씨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직원으로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중에도 "당신 이름을 기억해두겠다"며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준기자

metro HongKong

養十萬「小

疑被呃錢

廣東江門市司前鎮37歲女子袁美圓，近年飼養了10萬隻甲由，她在當地村落一幢閒置多年的樓宅闢立了「小強基地」。袁美圓表示，她飼養的甲由叫美洲大蠊，並聲稱將之生食有「抗癌」功效，但亦有專家質疑她的說法，懷疑她被詐騙集團呃錢。

袁美圓表示，曬乾的美洲大蠊1公斤可賣600至800元人民幣，每兩個月就可以收穫一次，

metro Brazil

ristas bêbados

월드컵 기간 음주운전 단속강화

브라질 정부가 월드컵 기간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월드컵이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도심 곳곳에 인력을 배치해 총 120차례 음주운전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루에 최소 4차례 불심검문이 이뤄지는 셈이다.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두지휘 할 글리우헤르 씨아쇼루 경관은 "우리의 목적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다. 술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metro Russia

Баба-яга помогает сдавать Е

시험 합격 기원 러시아 마녀 동상

최근 첼랴빈스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러시아 전설에 등장하는 마녀 '바바야가 할머니'의 동상이 세워져 화제다. 이 학교 학생들은 바바야가 동상에 통합국가시험(러시아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쪽지를 붙이고 있다. 알렉산드르 포포프 교장은 "통합국가시험은 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며 "학생들의 공포를 다스릴 수 있는 더 무서운 존재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바바야가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퀴벌레는 내 자식이자 보물"

중국 여성, 집에서 10만 마리 지극정성으로 키워 제약공장에 판매

'바퀴벌레 사랑'을 외치며 10만 마리를 기르는 중국 여성이 있다. 광둥성 장먼(江門)시에 사는 위안메이샤(37)가 그 주인공이다.

위안메이샤의 집 거실 탁자 위에는 포도당 액이 놓여 있다. 바퀴벌레 유충의 영양제다. 거실 뒤쪽에는 방충망으로 만든 문이 있다.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저절로 여닫게 돼있다.

'바퀴벌레 가지' 양쪽에는 3층 선반이 있고, 그 위에는 사과와 쌀겨 등이 놓여있다. 사람이 들어가면 바퀴벌레는 사방으로 흩어지며 선반 사이사이에 숨는다. 유충과 성충은 각각 계란 상자와 나무선반에서 살고있다. 위안메이샤는 날씨가 더우면 벽에 물을 뿌리고 추우면 보일러를 틀어준다.

위안메이샤는 자신이 기르는 바퀴벌레의 종류가 '미국바퀴'라고 밝혔다. 미국바퀴는 단 것을 좋아하며 생식을 할 경우 항암효과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약국 직원인 위안메이샤는 지난해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바퀴벌레를 기르기 시작했다. 출연자는 바퀴벌레를 사육하는 안후이성 사람으로 미국바퀴는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약에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안메이샤는 수만 위안을 투자해 일주일간 미국바퀴 사육법을 배우고, 1만 위안(약 160만 원)을 들여 바퀴벌레 인공종묘 20kg을 사왔다. 그는 "지금은 10만 마리 정도가 된다. 다 내 자식이고 보물"이라며 자랑스러워 했다.

위안메이샤는 바퀴벌레가 자라면 스테인리스 통에 넣고 생수에 담가둔다. 그런 다음 말려서 비닐봉투에 담고 안후이성의 한 제약공장에 판다. 말린 바퀴벌레는 1kg에 600~800 위안(약 10만~13만 원)에 팔 수 있고 두 달에 한 번 10~20kg을 생산한다.

왜 닭이나 오리 같은 동물을 안 키우고 바퀴벌레를 키우냐고 묻자 위안메이샤는 "다른 동물은 병이 쉽게 나지만 바퀴벌레는 생명력이 강해 병이 날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매일 배설물을 치우고, 알을 모으고, 먹이를 주는 일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우이(五邑)중의원의 한 의사는 "미국바퀴는 중약(中藥)의 재료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민간요법에는 사용해왔고 약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위험천만 '익사 게임' 페북 타고 증가 논란

프랑스에서 페이스북을 타고 위험천만 내기 게임이 번져 문제가 되고 있다.

'물에서 혹은 레스토랑에서'라는 이름의 이 내기 게임은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프랑스 당국이 제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게임은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에게 도전장을 보내고 초대하는 방식이다. 내기 게임을 승낙하거나 친구에게 도전하면 반드시 얼음물에 뛰어드는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도전에 성공한 후엔 페이스북으로 다음 대상자를 지목하고 선택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똑같은 게임을 하게 된다. 물에 뛰어들지 못할 경우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

지난 봄부터 시작된 이 게임은 페이스북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한 젊은 남성은 지난 5월 31일 바다에 뛰어든 뒤 얼음에 부딪혀 중상을 입기도 했다. 또 지난 일요일엔 두 고등학생이 운하에서 물에 휩쓸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 페이스북은 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을 따로 관리하고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지역경찰청은 경고문을 발표했다. 프랑크 드아이 담당관은 "처음엔 재미로 시작하더라도 게임을 하면 익사의 위험성이 있다. 경쟁적으로 게임을 하면 그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찰청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세요'라는 당부의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시네드 페르디 기자
정리=김두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전일>

코스피	코스닥
1993.59 (+2.74)	536.02 (-0.32)

금리	환율
2.72 (-0.02)	1020.10 (+2.30)

뉴스&뉴스

8강 진출 응원합니다 16일 티몬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월드컵 8강 진출 기원 이벤트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넥스 자금조달 450억원

●다음 달 1일 개장 1주년을 맞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은 지난 1년간 450억원 이상을 조달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시장의 총 53개 상장사가 개장 이래 조달한 자금 규모는 45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한 회사는 비철금속 제조업체 스탠다드펌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25억원을 조달했다.

조달 방식은 주로 사모 유상증자 또는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이었으며 투자자 대부분은 벤처캐피탈(VC)이었다. /김현정기자

취업 대외활동은 3번만

●지나친 대외활동은 오히려 취업에 방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 3년차 미만 신입사원 296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대외활동 횟수'를 물은 결과, '3회'가 37.8%로 가장 많았다. 2회(33.8%), 1회(14.2%) 등으로 85.8%가 '3회 이하'라고 답했다.

취업에 도움된 대외활동으로는 봉사활동이 34.5%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공모전(25.3%), 서포터즈(9.2%), 마케터(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운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8
독자센터	(02)721-9879

2002년 5월 31일 창간/일간신문 서울특별시 가00096

KMI, 제4이통 '5전6기' 시선 집중

가계통신비 인하·LTE-TDD 시장 성장 기여 여론도

제4이동통신이 이번엔 탄생할 수 있을까.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고 적격 심사와 본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KMI는 다섯번의 좌절을 겪은 만큼 이번엔 각오가 남다르다. 과거 실패를 경험으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지난 3월 사업 허가신청서 제출 당시 주주단 명부도 재차 정리해 올렸다. KMI의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주주 수를 614개에서 575개로 조정했다. 설립 자본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허가 후 어퇴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수천억원에 달하는 출자 계약 등의 서류도 추가했다.

KMI는 적격심사는 이미 통과한 경험이 있는 만큼 본심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만일 본심사를 통과하면 KMI는 주후 90일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16개월 후 2015년 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대외적인 부분도 제4이통 출범에 유리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불법 보조금 행위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면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KMI는 보조금 없이도 저렴한 요금과 질 높은 서비스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제4이통이 출범하면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국내 LTE-TDD 시장이 다소 뒤쳐져 있는 만큼 KMI가 제4이통으로 출범하면 국내 LTE-TDD 시장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선 주파수분할 롱텀에볼루션(LTE FDD)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확정지으면서 LTE TDD에도 문호가 개방됐지만 안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LTE FDD는 주파수의 다운로드 대역과 업로드 대역이 설정돼 있어 기지국의 커버리지가 넓고 품질이 안정적이다. 반면 LTE-TDD는 주파수 대역의 구분없이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사용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트래픽이 몰릴 경우 대역을 조절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중국은 LTE TDD를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17개국 21개사가 LTE-TD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책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LTE-TDD는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LTE TDD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밀릴까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에 대한 기술 확보 등도 필요한 만큼 LTE TDD를 기반으로 한 제4이통이 출범한다면 향후 관련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환율 1020원선 회복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3원 오른 달러당 1020.1원에 거래를 마치며 1020원선을 회복했다. /연합뉴스

'트리플A' 왕관 벗은 포스코

우량기업 줄조정 이어질까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신용등급 '트리플A (AAA)'의 4인방이던 포스코가 20년 만에 'AA+'로 한 단계 내려오면서 회사채 시장의 후폭풍에 관심이 쏠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가 지난 11일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시장에서 우량등급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기평은 포스코에 대해 세계 철강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원재료 확보 및 해외 일관제철 투자, 공장 증설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췄다.

이에 채권시장에서 포스코는 물론 포스코 자회사들에 대한 등급 강등 가능성이 불거졌다.

또 한기평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6월 한국신용평가와 한가평으로부터 부정적 등급전망을 받은 KT에 대해서도 강등 우려가 번졌다.

이제 공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일반 제조업 중에서 AAA 등급을 보유한 회사는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KT 등 3곳뿐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포스코의 등급 하향으로 시장이 입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1년 이후 무디스, 피치, S&P 등 해외 신평사들이 잇따라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반해 국내의 하향 결정은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포스코는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에서 주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보다 포스코 여파로 우량기업들이 줄줄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해외 시장보다 국내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잠재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AAA였던 포스코가 AA+로 이동하면 기존 AA+ 업체들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며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탈 악화가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점에서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KB지주·국민은행 내부통제 정밀점검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사상 처음으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해 정밀 진단을 벌일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밀려온 금융사 제재를 이달 말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당초 이달 말로 잡았던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경영 진단을 7월 중 하기로 했다.

금감원 기획검사국이 새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방위 검사에 나섰던 정도의 수위가 예상된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역 등이 총동원돼 KB금융의 각종 비리의 폐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KB금융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들여다보려면 많은 인력과 준비가 필요해 다음달 중 하기로 했다"며 "이번 기회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사고가 빈발하는지 근본부터 파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연이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보고받고 규정에 따라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밀 점검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 금융사를 파헤쳐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되면 최고경영진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근모기자

대방건설(주)

www.dbcons.co

모델하우스
성황리
오픈중!

디엠시티!

마곡지구의 메인시티가 되다!

[투자성공의 4박자]

1 핵심입지
- 양천향교역 단지 내 직접 연결
  (역사와 현관까지 떨어져 있어도 임대료 격차 존재)
- 특급 역세권(驛勢圈) 단지로 공실률 제로 예상

2 안정적 임대수요
- 마곡지구 16만여 명 배후수요
- 9호선 이용자(강남, 여의도 등)의 임차수요 흡수

3 높은 수익률(마곡지구 타사 대비 저렴한 분양가)
- 마곡지구 16만여 명 임차수요
- 황금노선 9호선만 가질 수 있는 임대료 프리미엄

4 1,281실 대단지(저렴한 관리비)
- 원룸에서 쓰리룸까지 다양한 평면구성
- 편리한 커뮤니티 제공(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키즈룸 등)
- 각 층별 휴게시설([illegible]) 제공
- 단지 내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삶의 질 향상

9호선 양천향교역이 단지 내로 직접 연결되는 선큰가든 전경

마곡지구 최대 규모 오피스텔, 대방 디엠시티에서 눈부신 생활을 시작하세요!

- **교통UP** 9호선 · 5호선 · 공항철도(예정) 트리플 역세권으로 김포공항, 여의도, 강남을 빠르게 연결!
- **수익UP** LG,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등 7개 대기업 5만여 명 포함, 16만5천여 명의 풍부한 배후수요!
- **생활UP** 보타닉파크(여의도공원 2배 이상), 이화여대의료원, 이마트, NC백화점, 구청, 세무서 인접!
- **품격UP** 휘트니스, GX룸, 실내골프장 등 고품격 커뮤니티! 원룸에서 쓰리룸까지 다양한 평면 구성!

총1,281실

시행 대방 디엠시티(주) 시공 대방건설(주) 자금관리 KB부동산신탁

문의전화
1688-9970

한강
강서 마곡 도시개발구역
마곡지구 대방 디엠시티 현장
마곡지구 대방 디엠시티 모델하우스

반갑다! 고금리 적금 등장

SC·우리은행 등 최대 7%… 카드 실적 꼼꼼히 따져야

시중은행들이 연간 금리가 5~7%에 달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들 상품은 연계된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금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최근 카드 사용 실적과 연계된 상품인 '부자되는 적금세트'를 출시했다. 적금 가입과 동시에 카드 이용액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 최대 4.2%의 추가 금리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기존 판매상품인 '퍼스트가계적금'을 가입한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일정 수준(신용카드 결제금액 월 30만원 이상, 체크카드 월 5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면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퍼스트가계적금은 월 적립금액을 10만원과 25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약정 조건을 채우면 1년제 적금 기본 금리인 연 2.8%에 월 적립 금액에 따라 ▲월 10만원 약정시 연 4.2% ▲월 25만원 약정시 연 1.7%의 추가금리가 제공돼 결과적으로 각각 최대 연 7%,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C은행 관계자는 "단기목적의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월 30만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연 7%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 '우리함께행복나눔적금'을 선보인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를 기본으로, 연계된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6%까지 올라간다. 이 중 금리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금자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 이 적금에는 월 10만원과 20만원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월 10만원 상품은 6%까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계된 카드를 연간 25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 월 20만원 상품은 연간 500만원 이상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금리가 6%까지 올라간다.

이밖에 방카슈랑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높여주는 상품도 있다. SBI저축은행의 'PB우대정기적금'은 창구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5.2%의 적금 금리가 적용된다.

/김은지기자 silver@metroseoul.co.kr

체크카드 이용고객 잡아라

적립·할인 특화 서비스 경쟁 치열

체크카드 성장률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도 치열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와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이 늘면서 지난 1분기 체크카드 발급 수가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앞질렀다.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데다 신용카드는 결국 빚이라는 생각에 체크카드 사용으로 돌아선 것이다.

실제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을 보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2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와 체크카드로의 전환추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1.9% 오른 119조5000억원에 그쳤다. 발급장수에서도 체크카드는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신용카드 회원 수는 전년 말 7589만명 대비 378만명이 감소한 7211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체크카드를 주요 상품군으로 잡고 신용카드 못지 않은 특화된 혜택을 담은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먼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매일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무제한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리워드 360 체크카드'를 내놨다. 이 카드는 식당, 병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맹점에서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장모준 SC은행 카드상품팀 상무는 "연말정산의 세제혜택과 함께 알뜰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최대 5%까지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빅데이터 경영을 선포한 신한카드는 새로운 상품 체계 'Code9'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첫 번째 카드로 (에스 라인) S-Line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에스 라인(S-Line) 체크카드는 실용 중시 직장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 할인과 신한금융그룹 계열시 혜택 등 신용카드급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다.

NH농협카드는 올해 첫 상품으로 해외전용 카드인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카드"를 선대했다. KB국민카드 또한 백화점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5% 이상 할인을 해주는 'KB국민 청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업계는 국내외 경기의 점진적 호전과 함께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체크카드 사용 확대 등 국민들의 카드사용 구조변화와 경영환경이 이전과는 다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illegible]

척추 바로 세우세요 LIG손해보험이 16일 서울 청계천에서 한국척추측만증재단과 함께 장기간 앉은 자세로 일하는 탓에 척추가 비뚤어지기 쉬운 직장인들에게 무료 척추건강 진단 기회를 제공하는 '척추건강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 위축에 가계 자금잉여 증가

소비 위축으로 가계는 자금 잉여가 늘고, 기업은 자금 부족 규모가 줄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는 소비지출이 소득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인 영향으로 자금잉여 규모가 전분기 15조6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5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 증가액은 전분기 25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크게 둔화됐다.

반면 자금운용에서 예금은 같은 기간 13조6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늘고, 주식 및 출자지분은 5조1000억원 감소에서 4조2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 위축이 지속된 데다 상여금 등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 가계의 자금 잉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설비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금 부족 규모가 전분기 8조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6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금융기관 차입은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이 위축된 영향으로 전분기 4조8000억원 감소에서 27조원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국채 발행과 한은 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전분기 15조원 자금 잉여에서 올해 1분기 8조원 자금 부족으로 바뀌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 기업, 정부의 금융부채는 총 41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86조1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김민기자

대신증권 15% 희망퇴직

대신증권은 16일 희망퇴직 신청자 가운데 302명이 퇴직하기로 최종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직원(2064명)의 14.7%에 해당한다.

대신증권은 올해 상반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하고 대리급 이상은 근속연수 5년 이상, 사원급은 8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희망퇴직자에겐 근속연수에 따라 10~24개월치 급여가 지급된다. 20년 이상 1급 부장급 사원이라면 최고 2억5000만원을 받는다.

/김현정기자 hjkim@

사모 급증·대표이사 교체 상장사 주의해야

금감원 상장폐지 전체 분석

금융감독원은 16일 위반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들이 보이는 주요 징후를 분석해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말 현재 상폐 사유 발생기업 23곳과 관리종목 신규지정기업 16곳 등 총 39곳을 상폐 징후 기업으로 분석한 결과 ▲자금조달 현황 ▲지배구조 및 경영권 관련 ▲회사의 영업위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상폐 기업 수는 51곳으로 지난 2008년 26곳에서 2009년 83곳, 2010년 94곳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고서 2011년 71곳, 2012년 64곳 등 3년 내리 감소했다.

◆자금조달 현황

소사대상 기업들의 최근 3년간 직접금융 조달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액공모와 사모 조달금액이 각각 120억원, 45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 실적은 전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사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음을 의미한다"며 "또 사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도 일정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등 사모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및 경영권

조사대상 기업들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바뀐 회사는 23곳(59%), 대표이사가 바뀐 회사는 21곳(54%)으로 각각 전체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동률이 각각 22%, 28%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 조사대상 39곳 중 최대주주 등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회사는 7곳이며 이 중 3곳씩은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이 자주 변동되는 회사는 내부통제도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회사의 영업위험

조사대상 기업들 가운데 최근 3년간 타법인 출자 등 목적사업을 추가·변경한 회사는 22곳, 이 중 절반(11곳)이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이종 사업을 신규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목적이 빈번하게 바뀌는 법인은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도 재무구조나 영업이 익이 실질적으로 나아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조사대상 기업들 중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견을 보면 34곳이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곳은 '비적정의견' 15곳은 '적정의견' 또는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다.

또 이들 34곳 중 절반(19곳)이 2011년과 2012년에도 '비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폐 사유가 발생하기 전전년도부터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상폐 등으로 입을 수 있는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숙지해 투자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한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WQHD 고해상도 모니터 SD850 출시 삼성전자가 WQHD 화질의 프리미엄 모니터 SD850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27인치(S27D850T)와 32인치(S32D850T) 두 종류로 출시되며 화면 해상도가 2560×1440으로 픽소 수가 약 3.7배 많다. /삼성전자 제공

진에어, 객실승무원 100명 채용

진에어가 사업 규모 확대에 발맞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0여명의 신입·경력 남녀 객실승무원을 채용한다.

진에어는 16~22일 진에어 채용 안내 사이트(jinair.career.co.kr)를 통해 객실승무원 채용을 위한 온라인 지원서를 접수 한다. 서류 심사와 1·2차 면접, 신체 및 체력 검사 등을 거쳐 최종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입 객실승무원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2015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를 보유하고 ▲신장 162cm 이상 ▲교정시력 1.0 이상이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영어,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경력 객실승무원 전형 지원자의 경우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진에어 객실 승무원

진에어는 "청바지 유니폼과 함께할 패기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석희기자

에티오피아 항공 "승객 두 배 유치하겠다"

아프리카 항공사 최초로 한국과 아프리카 노선을 운항하는 에티오피아 항공이 취항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승객 수 100% 성장이 2년차 목표라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한국에서 아프리카를 잇는 빠르고 편리한 여행길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으며 현재는 인천-아디스아바바를 주 4회 운항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취항 2년차를 맞아 지난 5월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도입했으며 승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를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인천 구간의 교통비 제공 계획도 밝혔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오는 2025년에 현재보다 5배가 늘어난 100억원 매출 목표로 하고 있다. 90개의 국제 취항지와 120대의 항공기 보유, 연간 1800만 명 승객 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균 기령 7년의 항공기 63대를 보유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자회사인 에티오피안 홀리데이즈를 통해 세이셸 여행 패키지와 탄자니아 사파리 투어 등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솔로몬 데베베 에티오피아 항공 한국 지사장은 "광대한 자원과 인구, 토지를 자랑하는 아프리카는 잠재력 있는 대륙으로, 최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한국 직항노선을 통해 아프리카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아프리카 첫 항공사로 지난해 6월 19일 한국에 첫 취항했다.

/정하은기자

꿈을 위해 점프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KB 국민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취업 희망 게시판을 적어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토종기업 휴대폰 카메라모듈 평정

애플 아이폰5S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모습 /애플 제공

LG이노텍 등 점유율 50%↑

토종 기업들이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카메라모듈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LG이노텍, 삼성전기 등을 앞세운 한국 기업이 이 분야 점유율 50.2%를 기록하며 2위 대만(18.8%)의 추격권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카메라모듈은 렌즈에 들어온 영상을 이미지센서를 이용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16일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인게이나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용 카메라모듈(CMOS)의 전 세계 매출액은 지난해 137억1000만 달러로 2012년(115억2600만 달러)보다 18.9% 늘었다.

이 가운데 LG이노텍이 23억400만 달러, 점유율 16.8%로 1위를 차지했다. LG이노텍은 2011년 처음 1위로 올라선 뒤 3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2위는 삼성전기로 18억9300만 달러, 점유율 13.8%를 기록했으며 대만 라이트온테크놀로지(7.4%), 일본 샤프(6.6%), 한국의 코웰전자(5.6%), 대만 딱스콘(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상위 20위권에는 캠시스, 엠씨넥스, 파워로직스 등 국내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들 한국 업체의 지난해 점유율 합계는 50.2%로 2012년(40.3%)보다 10%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처음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주요 업체의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한국 다음으로 대만(18.8%), 중국(9.8%), 일본(9.5%) 순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일본과 대만은 각각 21.4%와 10.8%에서 후퇴한 반면 중국은 6.7%에서 약진하면서 일본을 처음 추월했다. /박성훈기자

프리스비 '보상 판매서비스' 확대

애플 리셀러샵 프리스비에서 애플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상 판매 서비스'를 확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리스비 보상 판매는 애플 제품뿐 아니라 삼성, LG, 소니 등 타사 노트북 및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도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애플 제품을 반납한 고객은 추가 1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맥북 에어·프로 레티나 구매시 최대 8만원 상당의 이벤트 카드를 증정하는 등 서머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한다.

프리스비는 체험형 애플 매장으로 현재 명동, 강남, 홍대, 건대, 분당, 여의도 IFC몰을 비롯해 부산, 대전 등 전국 8개 지역에 매장이 있다. /서승희기자 [illegible]

남 돕다보니 스펙은 '저절로~'

티쳐스가든 주말 캠퍼스 멘토링
재능포럼 '공익활동=필수' 운동

국내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새로운 교육시장을 창출하는가 하면 경쟁력 있는 스펙을 쌓고 있다.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이력서도 풍성하게 꾸밀 수 있는 윈윈 모델이라 할 수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티처스가든은 대학생의 재능을 바탕으로 주말마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다.

전국에서 몰려온 중·고등학생들이 주말 서울 대학가에서 대학생 멘토를 만나 진로, 전공, 공부법과 관련된 다양한 조언을 듣는다. 동아리체험, 선배와의 간담회, 전공 기초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대학생은 별도의 장학금과 함께 티처스가든으로부터 봉사활동 인정서를 받게 된다. 티처스가든은 이른바 '캠퍼스 멘토링' 활동으로 연간 500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최근 발족한 국내 최대 청년 재능기부단체 한국대학생재능포럼은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는 '스펙초월 릴레이 2.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생의 공익활동, 청년 시민 사회활동이 채용 기준에 핵심이 되는 스펙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공익 활동과 취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한국대학생재능포럼 측은 "기업이 청년의 공익 활동과 사회참여활동 성과 등을 채용시 핵심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나눔과 공익의 가치를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 새로운 인재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프로젝트 협력단은 매월 1회 기업 인사채용 임원,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취업 전문가와 함께 상시적으로 강연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스펙초월 오디션 프로그램, 스펙초월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스펙초월'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청년 비례대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핵심 멘토를 맡아 청년 취업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와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illegible]

티처스가든이 진행하는 캠퍼스 멘토링 교육사업. /티처스가든 제공

검은색 '그램' 팝니다 LG전자가 초경량 노트북 '그램'의 검은색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그램은 화면 크기가 13.3인치인데도 무게가 980g으로 가벼워 지난 1월 첫 출시 이후 '월평균 1만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LG전자 제공

두려운 사오정·오륙도

4050직장인 87%가 "은퇴 압박"

"나도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가 되는 것은 아닐까."

4050 직장인 대부분이 이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4050 직장인 312명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두려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7.2%가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은퇴 후 삶을 아직 준비하지 못해서'(65.1%, 복수응답)를 가장 많았다.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져서'(63.6%) '뒷바라지 할 자녀가 있어서'(28.7%) '은퇴 후 삶이 너무 길어서'(22.4%)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21%) '바뀌는 생활패턴 적응 등이 어려울 것 같아서'(9.9%)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무려 94.2%가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58.2%, 복수응답) '소득이 필요해서'(50.3%)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36.1%)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가 상위를 차지했다.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34.4%) '은퇴 후 남은 인생이 너무 길어서'(26.9%) '일 없이는 우울할 것 같아서'(25.5%)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23.8%)를 거론한 직장인도 많았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와 예쁜 손주 본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개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의구심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얻었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어찌보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특징,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대1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전망대부터 홍보관·갤러리까지…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광주역' 분양에 앞서 사업지 내 전망대를 마련해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견본주택 외 플러스알파(+α)를 제공해 수요자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마케팅이 인기다. 간단한 개발개요, 모형도, 내부 유니트 정도 들어서는 견본주택만으로는 수요자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α를 더하는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이달 말 경기도 광주시 'e편한세상 광주역'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사업부지 내 별도의 전망대를 설치했다. 전망대를 만드는 곳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견본주택 안에 위치해 멀리서 내려다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e편한세상 광주역'은 실제 아파트가 생기는 위치에 전망대를 마련, 청약 희망자들이 사업지 안에 들어서 성남~여주복선전철 광주역과 주변 주거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말뿐이 아닌 실제 진행되고 있는 개발호재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함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전망대 체험행사에는 첫 날에만 약 500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이후에도 평균 100~150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또 퇴근 후 방문을 원하는 수요자들도 많아 현재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사업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믿음을 주는 게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전망대를 만들었다"며 "광주지역뿐 아니라 분당·판교 등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라는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배곧누리' 문화관을 운영 중이다. 10월 특별계획구역 내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양에 앞서 배곧신도시 홍보와 함께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민들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겠다는 의도에서다.

4월 말 오픈 이후 열린 강좌는 정해진 인원을 넘는 수강생이 몰릴 정도로 성황이었다. 한라는 이 같은 열기를 잇고자 오는 21일과 28일에는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던 마술쇼와 인형극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화센터 기능을 갖춘 상설 견본주택인 '더샵 갤러리'를 지난달 30일 오픈했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옆에 자리잡은 더샵 갤러리는 지상 2층짜리 건물 3개동 규모로 최대 10가구의 견본주택을 전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벤트홀, 전시홀, 컨퍼런스룸, 멤버십라운지 등이 설치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갤러리를 향후 분양할 아파트의 마케팅센터로 쓰면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 계획이다. 각계 전문가들 초청해 벌이는 토크 콘서트인 '더샵 마음 톡 콘서트', 전문·아마추어 작가 전시공간인 '더샵 하우스갤러리', 영화 상영관 '더샵 하우스 시어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견본주택 안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한 지는 오래됐다"며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요자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견본주택 외 +α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광교 아파트, 천당아래 분당 첫 추월

3.3㎡ 당 1487만원 매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광교 신도시의 평균아파트 가격이 분당 신도시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1465만원으로 분당(1466만원)보다 낮았지만 올해 1월에 1479만원으로 분당(1468만원)을 처음 앞질렀다.

1기신도시 형성 이후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2007년 이후 하락세가 계속됐던 분당과 달리 광교는 2011년 입주 이후 상승세가 계속됐다.

특히 수도권 2기신도시 중에서 광교신도시만 유일하게 입주시점보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 광교신도시는 2011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고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 당 1384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매년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현재(2014년 6월13일 기준)는 입주시점 보다 평균 100만원 오른 148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경부라인에 위치해 있는데다 광교테크노밸리 등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청사 이전과 컨벤션센터 건립, 신분당선 연장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김포한강, 동탄, 판교, 파주운정 등 2기신도시 모두 입주 당시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판교는 2009년 입주 때보다 3.3㎡ 당 420만원 가량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동탄신도시도 2007년 입주 시점보다 260만원 정도 하락했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는 판교 아파트 매매가격이 3.3㎡ 당 2167만원(2014년 6월13일 기준)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분당(1492만원)과 광교(1487만원)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호재가 있는 20년 된 분당과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호재가 있는 5년된 광교의 엎치락 뒤치락 2위 쟁탈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는 ▲평촌(1227만원) ▲동탄(1030만원) ▲일산(1010만원) 순으로 높았고 중동과 산본, 파주운정, 김포한강은 아직까지 3.3㎡ 당 1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수도권 신도시 중 가장 낮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는 김포한강은 지난해 2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올해 1월 처음으로 900만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최근 약세로 돌아서면서 900만원 선이 다시 붕괴됐다.

/김두탁기자 kimdt@

부동산 시장 6월 국회에 달렸다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의 후속으로 6.13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6월 국회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대기 중이라 이들의 처리 여부가 향후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가를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다만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3월 5일과 6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된 터라 내용은 처음보다 크게 후퇴했다.

6·13 세제개편에서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게만 해당됐던 분리과세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일세율 14%를 적용받게 됐다.

또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1채라도 보유할 시 종합과세하기로 한 방침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경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도 2017년으로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 더 연장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은 현재 상정 대기 중이다. 재건축으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겼을 때 조합원들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로 유예가 끝난다. 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박선옥기자

현대건설,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도입

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보다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키로 했다.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아랫줄 왼쪽 세번째)과 임단협 조인식 개최 후 교섭위원·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선옥기자

백신도 못막는 '신종 파밍' 어떻게 대처할까

보안카드 대신 OTP 사용 공유기 비번도 설정해야

직장인 신은지(35) 씨는 최근 급한 업무 자리 때문에 들린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팝업 화면이 뜨는 것을 발견했다. 백신 업데이트 등 철저한 보안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자부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하는 은행 배너를 클릭했다. 하지만 이름, 주민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입력을 끝내자마자 이 사이트가 가짜 은행홈페이지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신종 파밍(Pharm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파밍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기존과는 달리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DNS주소를 변조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백신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기발한 수법에 최근 1700여명이나 개인정보를 털렸을 정도다. 이스트소프트·인터넷진흥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종 파밍 대처법을 알아본다.

◆원터치 안심이체 유용=은행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요한 기존 보안카드를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TP는 1분에 한번씩 비밀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파밍으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카드보다 안전하다. 지정한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원터치 안심이체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무료 와이파이 사용 자제해야=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는 '해커들의 놀이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ID·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로그인 과정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메일 확인 등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끄고 LTE·3G 등으로 접속해야 안전하다. 무료 와이파이에서는 간단한 검색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기 보안설정도 반드시=집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공유기를 초기설정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커에게 개인정보를 털어가라고 문을 열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관리자용 비밀번호 등 설정을 바꿔줘야 한다. 관리자페이지에서 무선 보안(와이파이 접속시 암호화)설정, 원격 포트 허용 해제 등 보안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밍캅 설치도 필요=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에서 무료 배포중인 파밍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도 유용하다. 이 프로그램은 파밍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수정할 수 있다.

이스트소프트의 '해킹 보상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스윙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파밍 등 금융 피해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다. 스윙 브라우저 설치후 활성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해외 창업 도전하세요 KT는 15일 창업 전문기관과 협력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노매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30일까지 참여할 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KT 제공

6년만에 다시 박태환 헤드폰

꼼꼼IT리뷰

비츠바이 닥터드레 '솔로2'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쓰고 나와 큰 인기를 얻은 '비츠바이 닥터드레'가 6년 만에 새 제품을 내놓았다.

비츠바이 닥터드레는 글로벌 프리미엄 헤드폰 브랜드의 대명사로 통한다. 전설적인 힙합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닥터드레와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산하 레이블이자 음반사인 인터스코프의 대표 지미 아이오빈이 함께 설립했다.

'박태환 헤드폰'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이후 GD&TOP, 태양 등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프리미엄 헤드폰 시장의 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전 세계 프리미엄 헤드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제품은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솔로'의 후속인 '솔로2'다. 한 체급 위의 '스튜디오'에 비해 사이즈가 다소 작다고 보면 된다.

전작의 톡톡 튀는 컬러감과 세련된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은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을 보면 왜 비츠바이 닥터드레가 패션아이템 역할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헤드밴드와 중심부에서 시작되는 프레임은 기존 헤드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체공학적 곡선인데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나사 하나조차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비츠바이 닥터드레 애호가들이 환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역시 성능이다. 힙합 뮤지션인 닥터드레가 고안한 제품인 까닭이었을까. 예전의 제품들은 저음에 최적화된 게 사실이었다.

클래식이나 발라드 등 감성적인 음악을 듣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6년 만에 돌아온 솔로2는 음향 시스템을 개선했다.

넓은 음역대를 즐길 수 있고 높은 해상도를 통해 깨끗한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귀에 착 달라붙는 이어컵 덕에 이같은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어컵 윗부분을 접을 수 있어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편하다. 레드를 비롯해 블루, 핑크, 그레이 등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돼 선택의 폭도 넓다. 27만원. /박성훈기자 zen@

표정 담긴 대화 네이트온에서

자신 얼굴도 사진 전송 가능

모바일 메신저 네이트온이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네이트온 표정대화' 이벤트를 24일까지 한다.

네이트온 표정대화는 심대방과 대화 시 이모티콘·스티커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신만의 미묘한 감성을 사진에 담아 함께 보냄으로써 재미 요소는 물론 상대방과 보다 친밀하고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모바일 네이트온에서 표정대화 기능을 실행한 후 대화창에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자신의 실시간 표정을 남에서 전송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표정대화 전송자 중 1000명을 추첨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표정대화를 가장 많이 전송한 이용자 등 1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박성훈기자

네이버 주소록 앱 1000만 다운로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주소록' 앱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0만을 돌파했다.

연락처 앱은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활용하는 기본으로 이미 모든 스마트폰에 선탑재돼 있다. 네이버 주소록 앱은 기본 탑재된 연락처 앱과는 차별화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과 다른 운영체계(OS)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때에도 손쉽게 연락처를 옮길 수 있는 기능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짧은 이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 스마트폰 분실 시 기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고 이후 새 스마트폰에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유사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기자

수입주류도 '대~한민국'… 월드컵 틈새시장 공략

한정판 출시부터 SNS 이벤트까지 다양

전 세계인의 축제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된 가운데 국내 주류업계 뿐만 아니라 보드카 데킬라 와인 등과 같은 수입 주류업계도 월드컵 마케팅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한국 대표팀의 경기 시간이 한국 기준으로 오전 4~7시와 같은 새벽시간에 열려 가볍게 좋을 돋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와인이나 칵테일로 마실 수 있는 보드카·데킬라 등의 수입 주류 업체들이 이 틈새를 노리고 한정판 출시나 SNS 이벤트 등과 같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리미엄 덴마크 보드카인 단즈카 보드카 (DANZKA VODKA)가 선보인 '2014 단즈카 보드카 브라질 에디션'은 브라질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출시된 한정판 제품이다.

그동안 스웨덴 등 남미등에서 출시했지만 올해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2014병만 한정 출시돼 소장가치가 매우 높은 제품이다.

와인수입전문기업 레뱅드매일이 월드컵을 앞두고 출시한 'I ♥ Brasil(아이 하트 브라질)'은 밝고 옅은 노란빛을 띄는 브라질산 스파클링 모스카토 와인이다. 국내에는 6000병만 한정 출시되며 신선하고 기분 좋은 꽃향의 아로마가 포도와 패션 프루츠 등의 과일 맛과 조화를 이뤄 가벼운 샐러드와도 잘 어울린다.

이마트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붉은악마 한정 와인인 '디아블로 골렉션'을 선보였다. 칠레 1위 와이너리(양조장)인 콘차 이 토로 사와 손잡고 2만4000병 한정으로 제작됐다. 이 패키지에는 '타임 투 비 어 데블 (TIME TO BE A DEVIL)'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새겼으며 국내에만 유통된다.

데킬라 브랜드 호세쿠엘보 (Jose Cuervo)는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호세쿠엘보 에스페셜(Jose Cuervo Especial)'을 구입 후 병 옆면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1등에게는 멕시코의 세계적인 휴양지 칸쿤 여행권 2매(1명)를 비롯해 푸켓 여행권 2매(2명), 위커힐 10만원 상품권(20명)등이 증정된다.

/황재용기자 hsoul@metroseoul.co.kr

단즈카 보드카 2014 브라질 에디션 한정판, 데킬라 호세쿠엘보 브라질 월드컵 이벤트, 붉은악마 한정 와인 디아블로 (사진 왼쪽부터)

새벽 월드컵 응원 출출할 땐~

간편식으로 허기 줄이고 영양도 챙기세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정 반대에 있는 지역적인 특성 상 시차 관계로 국가대표 팀의 경기를 새벽에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새벽과 이른 아침에 열리는데다 더위까지 더해져 체력 손실도 크게 된다. 이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양간식으로 출출도 쫓아내면서 체력까지 보충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대상의 '청정원 컵국밥'은 용기 안의 건조밥에 액상스프와 건더기를 넣고 끓는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간편식이다. 컵라면처럼 실온보관하고, 별도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상하이식짬뽕밥' 등 4가지의 오리지널 컵국밥과 용량이 보다 큰 '얼큰육개장국밥' 등 3가지의 큰컵 제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밥보다 부담이 적은 즉석죽도 시도해 볼 만 하다. 동원F&B '양반 호박죽', 오뚜기 '맛있는 호박죽' 등도 간단하게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 호박죽 제품으로 단호박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 체력 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라면에 대한 유혹도 예상된다. 이때에는 면의 형태는 띠지만 가래떡이 주 원료인 농심의 '떡국면'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깊고 담백한 사골육수에 흑고추와 표고버섯, 김, 파, 쇠고기, 계란 등 풍부한 고명이 들어가 있다. 또 종가집의 '매콤떡볶이 양념장'도 요긴하다. 매운 맛이 강하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과일차나 양질의 단백질 제공받을 수 있는 두유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일 가공전문기업 복음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는 '블렌딩티'는 온수뿐만 아니라 냉수에도 바로 희석해 아이스티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안성맞춤인 두유 제품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정식품 '베지밀 우리콩 두유'는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100% 국산콩의 껍질을 제거하고 콩의 속살만을 그대로 갈아 넣어 담백한 맛이 살아있다.

인세우유 '無(무)첨가두유'는 5년 이상 유기농 대두를 생산해 온 호주의 농장에서 수확한 유기농 콩만을 사용해 만들었다. /양형일기자

햇자두와 복숭아 이마트는 올해 처음 수확한 햇 자두와 햇 복숭아를 이마트 전점에서 오는 16일부터 본격 판매한다. 경북 영천에서 수확한 자두, 천도복숭아와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인 백도복숭아를 전북 남원에서 수확해 선보인다. 가격은 자두(300g) 7,000원, 천도복숭아(800g)가 6000원, 백도복숭아(2팩)는 5800원이다. /이마트 제공

반려견, 여름준비 이렇게…

좋은 사료에 더위퇴치 상품까지 출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반려견의 여름 나기 준비가 본격 한창이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로 관련 아이템들이 대거 출시된 것이 특징이다.

여름철에는 반려견의 피부·모질 상태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땀 배출을 하지 않는 반려견들은 대부분 더위로 인해 여름철 피부 질환을 앓기 십상이다.

이런 가운데 반려견 전문업체인 닥터독은 피부·모질 전용 사료를 내놨다. 생연어를 원료로 단백질 함유량이 뛰어나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연어의 아스타크단틴 성분이 육류 단백질로 인한 알레르기를 예방하며 오메가지방산과 비타민, 리놀레산 등이 풍부해 건강한 피부와 털로 가꿔준다.

복부 부분을 활용해 체온조절을 하는 반려견들을 위해 시원한 방석을 준비하는 것도 요령이다. 강아지 방석에 아이스팩을 삽입할 수 있는 아게토의 쿨매트는 반려견들의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냉장 지속효과가 뛰어난 쿨매트의 아이스팩은 냉동보관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아이스팩과 다르게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위생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애견 호텔 도그파크(사진)는 최근 120여평의 야외 수영장을 마련해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300여 평의 실내 공간, 국내 유일의 애견 설계를 준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형일기자

단, 1회 섭취로 1일후 시들한 男性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
파워엠 프리미엄골드
고급형 신제품 출시
力
자신있게3일
무료체험
효과없을시
환불!
한의사 한 형 희
남자를 위한 파워엠! 단, 한번만! 섭취해도
24시간후 시들한 남성이 확 바뀝니다!
한번 1회 섭취로
달라진 남성을 확인하세요!
3일이면 당신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그 효과에
놀라셨습니까?
아직도 1회용
남성제품에
의존하십니까?
남성제품
더 이상비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효과없는
제품에 속지마십시오!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가짜 비아그라제품도, 유사성분이 들어있는 불법제품도 아닙니다
순수한 천연재료만으로 남자를 위해 연구개발하여 만든 안전한 제품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남성들은 당뇨, 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시들한 20~80대 남성이 20대 남성으로 태어난다 단, 1회 섭취만으로도 놀라운 남성력 회복
단, 1회 섭취로 달라지는 남성! 3일후 강한남성으로 탄생!
무료체험 3일을 실시하여 효과없을 시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 일반형 : 파워엠
▶ 고급형 : 파워엠 프리미엄 골드
확인해 보십시요!
파워엠 효과!
주문 및 문의전화 1644-5680
당일배송 됩니다

월드컵 패션 "너무 튀면 촌스러워"

소소한 포인트로 기본 아이템 작용 권할만

월드컵 축제를 즐기기에 브라질과의 시차가 문제다. 그렇다고 4년 만에 찾아온 축제를 무덤하게 지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서 각 거리 응원은 어려지만 월드컵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스타일 팁 몇가지를 제안한다.

◆일상에서 편안한 스포티룩

월드컵을 맞은 남성들에게는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포티한 분위기의 스타일링을 추천한다. 노란 색상의 바람막이는 경쾌한 멋을 살려 월드컵 시즌의 역동적인 느낌을 고조시켜준다.

깔끔한 스포티룩을 연출하고 싶을 땐 여기에 화이트 색상의 팬츠를 매치하면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는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패턴이 가미된 푸른 색상의 팬츠를 입으면 좀 더 세련된 연출이 가능하다.

◆회사에서는 월드컵 색상으로

노란 색상의 치노팬츠는 남성들의 댄디룩에 안성맞춤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묻어나는 지이크파렌하이트의 치노팬츠에 색감이 짙은 피케 셔츠를 함께 매치하면 활동성까지 겸비해 산뜻한 오피스룩을 연출할 수 있다.

월드컵 느낌을 한 층 더 내고 싶은 직장 남성들은 붉은 색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붉은 계열의 셔츠에 톤 다운된 팬츠를 함께 입으면 도시적이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을 뽐낼 수 있다.

붉은 색상이 부담스럽다면 스트라이프(줄무늬)가 포인트로 가미된 티셔츠와 재킷을 걸쳐 단정한 멋을 연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룩 원피스·숏팬츠 여성미 발산

여성들은 월드컵이라고 요란하게 치장할 필요없이 평소 여름 시즌을 위해 준비했던 옷으로도 충분히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핏감을 살린 룩 원피스는 몸매를 은근히 부각시켜 여성미를 뽐내는 동시에 여름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인기가 많다.

특히 붉은 색상의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함께 착용하면 시원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겨 월드컵을 즐기기에 충분한 옷차림이 된다.

평소 귀엽고 활발한 느낌을 선호하는 여성들은 노란 색상의 숏팬츠에 화이트 색상의 티셔츠를 추천한다. 붉은 색 액세서리를 매치하면 월드컵 스타일 연출에 도움이 된다.

/김학철기자

성별 특성 살린 전용 편집숍 주목

ABC마트 제공

/루이까또즈 제공

독특한 신발서 뷰티 아이템까지 한자리에

최근 다양한 브랜드의 잇 아이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남성·여성 전용 편집숍'이 소비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명품 못지 않은 품질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무장한 이 전용 편집숍은 개성을 중시하는 2030 고객들에게 최적의 쇼핑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신발 브랜드부터 뷰티, 소품까지

먼저 지난 달 ABC마트는 부산 중구 광복로에 위치한 와이즈파크 광복점에 여성전문 편집매장인 '누오보 블루라벨 와이즈파크 광복점'을 국내 최초로 오픈했다.

이 매장은 디자이너 여성화와 해외수입 신발을 편집한 새로운 개념의 부티크 샵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해당 매장에는 신발 뿐만 아니라 뷰티제품과 패션소품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한자리에서 구비돼 있어 트렌디한 여성고객들에게 반응을 얻고 있다.

미스트 겸용 뿌리는 스타킹, 아로마오일 등의 뷰티 제품부터 수제 다이어리·에코백·건강 물통·커스텀 액세서리 디자인 소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자리에 구비돼 있다.

◆유러피안·북유럽 감성의 편집숍

유러피안 감성의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일릭시스 앤 이'가 여성들 사이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2030세대의 여성을 겨냥한 이 브랜드는 프랑스의 브라질 바르도, 빠레니스, 이탈리아의 핀코, 벨기에의 에센셜(ESSENTIEL)과 함께 자체 제작 브랜드인 일렉시스 앤이 치 총 5개의 브랜드로 구성돼 있다. 북유럽 특유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이 강조된 스타일까지 다양한 콘셉트들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미국 현지 소호 브랜드 모였다

엘바로가 이태리와 미국의 소호 브랜드들로 구성한 여성 편집숍 '스캄달'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을 타겟으로 했다. 빈티지하면서도 도시적인 감각을 살린 컨템포러리 캐주얼웨어가 주된 상품이다.

특히 빈티지한 멋을 추구하는 기본 콘셉트에 따라 기존 백화점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SI(Shop Identity)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춘하 상품 기준 니트류 50%, 우븐 상품군 35%, 잡화 15% 비중으로 구성하고 수입상품과 자체기획 비중을 7:3으로 운영해 국내 소비자의 욕구를 적절히 부합했다는 평이다.

◆남성을 위한 루이스클럽

루이까또즈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남성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루이스클럽' 1호점을 열었다.

이 매장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25~35세 남성을 위한 남성 전문 편집숍이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이 매장은 루이까또즈 가방과 유럽에서 수입한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와 잡화를 비롯해 남성 그루밍 및 스킨케어 액세서리 제품을 구비했다. 특히 1층에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바(Bar)를 운영해 남성들의 로망과 취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동아오츠카, 여름특수 '믹싱 레시피' 공개

포카리스웨트는 더 진하고 더 시원하게

동아오츠카(사장 이원희)가 여름철 특수를 맞아 기존 제품을 베이스로 하는 '믹싱 레시피'를 최근 공개했다.

먼저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포카리스웨트는 얼음과 함께 더욱 진하고 시원한 맛을 낼 수 있다. 바로 포카리스웨트를 얼음트레이에 넣고 얼려먹는 '포카리 각얼음'으로 한 입 크기의 슬러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제로 칼로리를 자랑하는 나랑드사이다와 와인을 같은 비율로 섞는 '나랑드에이드'는 감탄산과 깔끔한 단맛이 어우러져 와인의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칼로리 걱정 없는 여름 음료다.

이와 함께 상큼한 과일 맛을 즐길 수 있는 '데미주'는 데미소다와 술을 혼합한 믹싱주로 향긋하면서 목 넘김이 좋아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황재용기자 hsoul38@

강강술래 "돼지양념 먹은 양만큼 무료포장"

시흥점, 양념구이 포장상품 1+1행사 진행
신림점, 술래양념구이 2+1 이벤트 전개
쇼핑몰, 너비아니 반값 '한국 응원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응원이벤트를 벌인다.

시흥점은 7월 11일까지 매장에서 돼지양념구이를 시킨 양만큼 나갈 때 동일 메뉴를 무료로 포장해준다. 술래·강강 한돈·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이벤트를 벌인다.

신림점은 7월 4일까지 매장에서 술래양념구이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더 주는 2+1 행사를 진행한다. (배달이워 정식 제외)

이달 말까지 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특임자한돈 너비아니(360gX3박스)를 반값인 1만8000원에 판매한다. 갈비맛 석고기육포(50gX10봉)도 40% 할인된 3만6000원에 선보이는 대한민국 응원캠페인도 함께 벌인다.

또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세트(350ml·5봉·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세트(600ml·5봉·15인분)는 3만8800원에 최대 28% 할인 판매한다. 선착순 50명에게 '미들란첼로전' 티켓(1인2매)을 선물로 준다.

베스트셀링 메뉴인 강강양념(520g)과 돼지양념(500g), 한돈양념(500g), 한우불고기(500g)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도 40% 할인된 4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장마철 모발 관리 이렇게 하세요"

주 3회 마스크팩으로 영양·보습 공급, 저녁 머리감기 필수

고온 다습한 여름, 특히 장마철에는 뜨는 화장뿐 아니라 축 처지는 헤어로 외출 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습한 날씨로 공들여 한 세팅이 금방 풀리거나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고 부스스해지기 때문이다. 스타일링 기기를 이용한 경우라면 모발이 더 건조해지고 푸석한 상태가 돼 관리가 더 힘들어 진다.

장마철에 모발이 처지거나 부스스해지는 것은 모발이 평소보다 공기 중의 습기를 많이 흡수하면서 쉽게 처지고 모발의 형태를 유지하는 수소 결합이 끊어져 흐트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럴 때는 일주일에 3회 마스크팩 등을 사용해 보습 및 영양을 공급해 모발에 탄력을 주어야 한다.

평소 곱슬거리는 모발이라면 보습력·고정력이 있는 스타일링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다. 특히 모발 뿌리부터 살리는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면 처진 헤어의 볼륨도 살리면서 습한 장마철에도 보송보송한 헤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아모스 프로페셔널의 '컬링에센스 2X'는 보습력의 에센스 기능과 고정력의 왁스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다. 장마철 축 처진 컬을 탄력 있게 잡아줘 가볍고 윤기 있는 웨이브 헤어를 연출할 수 있다.

장마철 비를 맞았다면 바로 머리를 감는 것이 상책이다. 빗물 속 환경오염 성분이 머리에 직접 닿아 두피 상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머리를 감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른 수건으로 닦은 뒤 빗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땀과 피지로 인해 세균이 빨리 번식하는 여름철에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아 모낭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샴푸를 할 때에는 거품을 내어 3~5분 정도 마사지한 다음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 충분하게 헹군다. 두피가 지성일 경우 저녁에는 세정력이 우수한 딥클렌징 샴푸를 아침에는 영양을 주는 컨디셔닝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발이 젖은 상태로 잠을 자면 마찰에 의해 모발이 손상될 수 있고 습하게 물기가 남은 두피는 비듬균·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된다. 자기 전에 헤어 드라이어를 10㎝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찬바람으로 두피와 모발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JMW의 'DM 10 Series'는 전문가형 드라이어를 작은 사이즈로 만든 미니 헤어 드라이어다. 음이온이 발생해 모발 손상을 예방하고 모발을 촉촉하게 건조시키며 정전기 발생을 줄인다.

/정혜인기자 hjung0414@metroseoul.co.kr

중기 주방용품, 온라인 마케팅 한창

3040 주부 겨냥 직·간접 체험기회 제공

30~40대 주부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 중소 중견 주방용품 업체들이 '입소문의 근원'이 되는 온라인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비용 대비 인지도 극대화를 노리기 좋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링크드인의 조사에 따르면 1000여 개의 북미 지역 중소기업 중 81%가 SNS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56%는 2012년보다 2013년의 SNS 마케팅 지출을 늘린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SNS 이용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13년 SNS 이용률에서 30대는 46.9%, 40대는 28.8%로 지난해보다 각각 11% 가량 증가했다.

mychef

마이셰프가 운영하는 '오 마이셰프 인 마이키친'

이처럼 블로그나 커뮤니티 외 SNS에서도 중장년층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주부들의 온라인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중소 주방용품 업체들은 온라인 네트워크 확보에 뛰어들어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정보 등 제공

노** 고리빔의 쿡웨어 브랜드 마이셰프(mychef)는 201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 '오 마이셰프 인 마이키친'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마이셰프 측은 주부들이 자신들과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정보의 교류, 재생산을 통해 관심 제품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주부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정보나 요리 레시피 등 주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최고의 빙수는? 카페베네(대표 김선권)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의 본사에서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카페베네 최고의 인기빙수를 뽑는 '2014 월드빙수컵' 현장 투표 이벤트를 벌였다. /카페베네 제공

코레일관광개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코레일관광개발 제공

코레일관광개발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시작됐다.

공공기관으로는 5번째로 인증을 획득한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해 10월 고객 감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와 임직원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CCM 인증 획득은 코레일관광개발이 코레일의 계열사로서 앞으로 공신력과 고객 만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 코레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인기자

여름철 안질환 선글라스 도움

물놀이 후에는 결막염, 해외여행땐 건조증 환자 많아

더위가 시작되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눈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안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눈에 이상 생기면 병원 찾아야

먼저 물놀이 기회가 많은 여름철에는 유행성 각결막염이나 세균성 각결막염이 많이 발생한다. 물이 따뜻하고 습해지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놀이 후에는 깨끗한 물로 눈을 씻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렌즈를 낀 채로 수영을 하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렌즈와 눈 사이에 장시간 머물러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구건조증을 유의해야 한다. 기내의 습도는 평균 15%로 눈물의 증발이 심해져 눈이 마르게 되고 이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없던 사람도 해외여행 등을 다녀온 후 안구건조증에 걸리게 된다.

또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권영아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교수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며 "또 물놀이나 여행 후 눈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홍대여신이요? 신전 다 부서졌어요

케이블 대세로 떠오른 가수

레이디제인

가수 레이디제인에겐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다. '홍대여신' 그리고 '쌈디의 전 여자친구'. 하지만 현재 그에겐 '케이블 여신'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린다. 그는 "홍대 여신으로 군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홍대여신? 신전 다 부서졌다"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 줄줄이 스케줄에도 '방긋'

레이디제인은 케이블 방송의 대세로 떠올랐다. 현재 E채널 '용감한 기자들', KBS W '시청률의 제왕',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 등 고정 프로그램만 5개를 맡고 있다. "tvN '더 지니어스'의 애청자였어요. 답을 맞춰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죠. 제가 좀 덕후(마니아) 기질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덕후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시즌2에 정말 출연하고 싶었어요." 새로 도전하고 싶은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그는 바쁜 일정으로 몸무게 3kg이 빠졌다고 한다. "예전엔 이틀날 음악방송이 있어도 '우린 브레이먼이야. 지금 짬뽕을 먹고 싶으면 먹는거야' 하고 폭풍 흡입하고 얼굴이 부은 채로 방송에 나가기도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자는 주의였는데 요즘엔 먹는 것도 귀찮아 졌어요."

그의 본업은 누가 뭐래도 가수다. 하지만 음반 발매는 어쩐지 좀 뜸하다.

"사실 저도 음악 활동 안 하는 거 무척 아쉬워요. 참 웃기는 게 음악을 하고 싶었을 땐 돈이 없었고, 이제 음악할 돈을 벌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소속사 사장님은 '일단 돈부터 벌고 음악 작업하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데 얼른 노래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전부터 늘 '제는 포텐만 터지면 된다'(숨겨진 잠재력이 폭발한다는 뜻)고 말했는데 '라디오스타'에서 제대로 터뜨렸죠."

◆ '저 교양 있는 여자예요'

홍대 인디신의 여신이었던 그가 케이블의 뮤즈로 자리 잡기까지는 '화려한 말발'이 한몫했다. "학창시절 때부터 늘 반장을 도맡아 했어요. 친구들을 주도하거나 앞장서서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그의 꿈은 언론인이었다고 한다. 전공 역시 언론정보학이었다.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하니 자연스럽게 아나운서를 꿈으로 키웠죠. 밴드 활동을 하는데 음악도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교수님이셨던 이금희 아나운서께 상담을 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라고 단순명료한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가수의 길을 걷게 됐죠. 토익도 900점을 넘겼는데 쓸 데가 없어졌네요.(웃음)"

그가 맡은 프로그램들 중 이슈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단연 '로맨스가 더 필요해'다. 함께 출연 중인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와의 '핑크빛 무드'에 대해 "'진호, 오빠랑 썸 탄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방송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남자 얼굴 보거든요.(웃음)"라고 밝혔다.

연애 상담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다양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애 고민을 듣다보면 별 희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송에선 비슷한 답을 내놓지만 사실 각자의 연애가 다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정답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나이가 드니 '뭐야 말도 안 돼'에서 점차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의외로 생각이 깊다는 기자의 말에 그는 "취미가 독서"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취미가 독서였어요. 아, 만화책 정말 좋아해요. '슬램덩크' '바사라' 전권 다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소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 보고 영화 보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머리에) 주입하려고 해요. 저, 교양 있는 여자예요.(웃음)"

홍대부터 케이블까지 섭렵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주변 PD분들이 연기 잘 할 것 같단 말만 하고 섭외는 안 해요. 연락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웃음)

/정지원기자 jangk...@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리온드미디어) 디자인/최송이

고정 프로그램 5개, 실시간 검색어 점령
8월엔 본업인 가수로서 활동하고 싶어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 왼쪽에서 두번째가 레이디제인. /CJ E&M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드라마가 온다!

18세
본부장님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

코믹 오피스 활극

오늘 밤 11시 | tvN 방송

서인국 | 이하나 | 이수혁 | 이열음 연출 유제원 | 극본 양희승 조성희

흥행 드림팀 안방 재회

'유혹' '조선총잡이'…일부 식상 평가 속 기대감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이 재회한다. 식상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재회의 바람직한 예로는 배우 김수현과 전지현이 있다. 함께 한 영화 '도둑들'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모두 성공했다. 권상우·최지우, 이정진, 이준기·남상미가 각각 다른 작품에서 또 호흡을 맞춘다. 재회 커플의 흥행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상우·최지우·이정진은 SBS 새 월화드라마 '유혹'에 출연한다.

권상우와 최지우는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2003) 후 11년 만에 재회했다. 시청률 30%를 기록한 '천국의 계단'은 두 배우를 한류스타로 만든 작품이다. "송주(권상우) 오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등의 유행어를 만들었고 OST '아베마리아', '보고 싶다'도 큰 인기를 얻었다.

권상우는 '유혹'에서 차석훈 역을 맡았다. 명문대에 진학한 수재지만 빚 때문에 벼랑 끝에 서게 되면서 갈등을 겪는다. 최지우는 후계자 수업을 받아 그룹을 이끄는 유세영 역으로 출연한다. 사랑과 결혼에 관심 없던 그는 우연히 차석훈 부부를 만나 삶의 변화를 겪는다.

권상우와 이정진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2004)에서 한 여자를 두고 경쟁했다. 영화는 3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옥상으로 올라와"라는 유행어를 남겼다. 두 사람은 '유혹'에서도 대립한다. 이정진이 맡은 강민우 역은 외모와 재력 등을 갖춘 남자지만 바람기가 심각한 인물이다. 차석훈(권상우)의 아내 나홍주를 만나게 되면서 삼각 관계를 형성한다.

'닥터 이방인'의 후속으로 다음 달 방송 예정.

KBS2 새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의 이준기와 남상미는 MBC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2007)에 함께 출연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두꺼운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이준기와 남상미는 첫사랑 커플로 출연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두 사람은 '조선총잡이'에서 애절한 사랑을 한다. 이준기는 개화기에 칼을 버리고 총을 잡아야만 했던 조선의 마지막 검객 박윤강을 연기한다. 남상미는 박윤강의 연인이며 호기심 많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수인 역을 맡았다.

오는 25일 '골든 크로스' 후속으로 첫 방송될 예정이다. 작품은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총잡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감성 액션 로맨스물이다.

/전효진 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유혹'의 주연 최지우, 권상우

'조선총잡이'의 주연 이준기, 남상미

싸이 러시아전 거리응원

코엑스 광장 공연 '행오버' 첫 무대 기대

월드스타 싸이(사진)가 2014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전을 치르는 태극전사를 위해 강남에서 거리 응원을 펼친다.

소속사는 16일 "싸이가 18일 오전 7시(한국시간)부터 진행될 한국 대 러시아 경기가 열리기 직전 서울 강남 영동대로 코엑스 앞 특설무대에서 특별 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싸이는 이 자리에서 최근 월드와이드로 발표한 신곡 '행오버' 무대를 한국 팬들에게 처음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싸이는 한국팀의 선전을 위해 공연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현재 미국 프로모션으로 바쁘지만 이번 응원전을 위해 지난 주말 서둘러 귀국했다.

싸이의 거리 응원 현장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경찰·소방서·구청 등과 협조해 1000여 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하고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 구간의 상행 7차선 도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한편 9일 발표된 '행오버' 뮤직비디오는 16일 오전 8시 기준 6000만뷰를 넘으며 싸이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은선기자

베이비 카라 첫 쇼케이스

1000여 팬들 환호 속 무대 적응 검증

그룹 카라의 멤버를 꿈꾸는 베이비 카라(소진·시윤·영지·채경·소민·채원·유지)가 1000여 명의 팬을 만났다.

베이비 카라는 지난 15일 서울 올림픽 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개 쇼케이스를 열었다. '카라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미션인 무대 적응력과 팬을 스스로 모으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연엔 멤버들이 모은 200명의 지인과 자발적으로 모인 800명의 팬이 참석했다. 수 많은 관객에 놀란 베이비 카라는 열정적인 무대로 화답했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미션 곡이었던 '루팡'을 불렀고 멤버 각자의 솔로 무대, 팬과 함께 섹시 웨이브, 세레나데, 커플댄스 등을 해 환호를 받았다.

'카라 프로젝트'는 DSP미디어와 음악채널 MBC뮤직이 제작한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베이비 카라'는 DSP미디어 연습생 7인이 카라의 멤버가 되기 위해 결성된 프로젝트 팀이다. /장효진기자

그룹 베이비 카라 DSP미디어 제공

류승룡·수지, 판소리 사제지간 호흡

배우 류승룡(왼쪽 사진)과 미쓰에이 수지(오른쪽)가 판소리 스승과 제자로 호흡을 맞춘다.

16일 영화계에 따르면 류승룡과 수지는 최근 영화 '도리화가' 출연을 확정했다. 류승룡은 판소리 대가 신재효 역을, 수지는 그의 애제자 채선 역을 맡았다.

'도리화가'는 1800년대 조선 판소리를 체계화하고 진채선·허금파 등 최초의 여류 명창을 길러낸 신재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제목은 신재효가 진채선을 위해 만든 단가를 뜻한다. 영화 '전국노래자랑'의 이종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수지는 이번 작품을 위해 몇 달 전부터 판소리를 배워왔다. 류승룡은 영화 '손님'의 촬영이 끝난 뒤 '도리화가'에 합류할 계획이다.

영화는 하반기 크랭크인해 내년 개봉될 예정이다. /하은선기자

필요한 강박은 '한가로움'

박상현의
트렌드읽기

한 소비자가 서점 점원에게 책값을 물었다. 점원은 5달러라고 답했다. 소비자는 서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책값을 다시 확인했다. 점원은 6달러라고 대꾸했다. 소비자는 잠깐 사이에 책값이 달라진 것에 대해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점원이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라고 답했다. 점원은 자신이 독서를 하고 있는 시간을 의미 없이 빼앗은 것에 대해 일갈한 셈이었다. 이 점원이 100달러짜리 지폐의 주인공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영화 '도둑들'에서 절도범 뽀빠이는 법 집행을 운운하는 형사들에게 '원래 법이라는 게 좀 느리지 않나'라고 반문했고, '이제부터 빨라지지 뭐야, 특별히 너한테는'이라는 대꾸가 붙었다. 중년을 넘기는 어른들은 '세월 참 빨리'를 입에 달게 마련이다. 사람이 체감하는 인생의 속도는 나이의 두 배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지 싶다. 그래서인지 떡볶이를 만들 때, 시험공부 할 때, 사업계획서를 쓸 때, 출장을 갈 때, 데이트 할 때, 자료를 찾을 때, 결혼준비를 할 때 등 모든 순간에 시간 절약은 필수다.

최근 개봉한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시간에 대한 상상력을 담고 있다. 외계인이 가진 시간 리셋 능력을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영화에서 톰 크루즈는 우연하게 외계인의 능력을 얻게 됐다. 하루를 리셋 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가지고,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이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의치 않다. 시간을 다시 쓰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 결국 주인공이 택한 방법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다. 시간을 쓰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 감정적, 육체적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다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영화에 숨은 메시지 중 하나가 그렇다.

어떤 강박에 휩싸여 시간을 쓰는 건 무위도식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원치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에 대한 시간을 또 써야 하는 연결고리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게을러 질 때 더 많은 걸 할 수 있기도 하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강박은 한가로움일지 모르겠다.

/선물닷컴(www.tfx.co.kr) 대표

날씨

6/17 火 일출시각 05:10 일몰시각 19:5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1.co.kr

지역	기온
서울	20/28
청주	19/28
대전	20/27
전주	20/27
광주	20/28
제주	18/21
강릉	17/21
울릉도	17/21
대구	20/28
포항	18/28
울산	18/26
부산	18/25

덥다고 찬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마시면 복통,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다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서울백병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8	1		5
3	4		6					
	7			9				
2			3					
4	3		7	6	1		2	8
					2			9
				3			7	
					4		8	1
9		1	8					3

4	9	2						
6				3			9	5
	8		6					
					5			8
	5	6	8	4	9	2	7	
9			3					
					3		2	
7	2			8				9
						6	4	7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펜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has.com

월세 준 아파트 처분하려는데 비워 둔 상태에서 매매하세요

로라신화 여자 73년 9월 12일 음력 오전 12시

Q 안녕하세요. 출근길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적어주셔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제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용기를 내어봅니다. 제 아파트를 월세 주고 전원주택에 사는데요. 8월 말에 이사를 하려는데 싸게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을 지요.

A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계약이 성사 될 수 있는 인수(印綬) 문서운이 들어오거나 재물 운이 적이 알맞하게 흘러야 하는데 2014년 운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문서에 형충(刑沖)이 있어 재물을 크게 손해 볼 수가 있으므로 귀하의 뜻대로 흡족한 금액으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이니 세가 나가면 비워진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음력 7월 지출이 많고 7~8월 주변 환경이 전다하게 복잡해지면서 9~10월 시류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11~12월 구설이 많아지게 되나 집이서 시세 차익을 대어 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운 상태에서 매매하여야 하는 여런 점을 참작해시기 바랍니다.

남친이 구직중 헤어져야 하나 상대 의사 파악후 결정하세요

syh2000 여자 83년 1월 18일
남자 81년 12월 16일 낮 10시경

Q 신문으로만 읽다가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까지 남기네요. 최근 남자친구가 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나 내년으로 결혼하고 싶으니 남친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무조건 기다렸다가 결혼하면 되는지, 아님 하루라도 시간 보내기 전에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나을 지 고민입니다.

A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며 저절로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겠지요. 그러니 복 받을 원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복이 굴러 들어와도 어느새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혼은 큰 축복 중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계획을 구체적은 아닐지라도 크게는 세워놔야 할 터인데 계획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상대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이기도 할 것이니 확실한 의사를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순서인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든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남편의 덕은 있으나 속정은 깊지 않으니 결혼하고 적막을 안다니려면 취미생활을 일상화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7일(음 5월 20일) 김학수 인생상담 ☎ 7 - 4 - 4

쥐: 48년생 사소한 일은 간섭하지 말라. 60년생 변수가 많아 초지일관이 어렵다. 72년생 혼자라는 생각 버리고 도움 요청할 것. 84년생 일이 잘 풀려 자신감 넘친다.

소: 49년생 새벽에 저항하면 피곤해진다. 61년생 상대방과 생각 달라도 인정할 것. 73년생 기는 날에 정날연 격이다. 85년생 모임에 가면 좋은 이성 만나니 기대하라.

호랑이: 50년생 자녀의 아픔은 보듬으라. 62년생 유혹을 이기고 한 가지만 집중해야 한다. 74년생 급하게 결정하면 탈이 생기는 법~ 86년생 작은 것에 연연하면 큰 것 놓친다.

토끼: 51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63년생 면전에서 사람 망신주지 말라. 75년생 익숙하게 굴었던 상사는 떠난다. 87년생 함께 꿈꾸는 동반자가 있어 즐겁구나.

용: 52년생 좋은 그림자는 빨리 지워라. 64년생 가족이나 친구 뒤로는 큰 생긴다. 76년생 변덕을 재주로 생각하지 말라. 88년생 고전은 하지만 희망을 향한 힘이 솟는다.

뱀: 53년생 대세 따르면 편안해진다. 65년생 이익을 보자고 남 부추기지 말자. 77년생 배우자의 잇단 판지에 피로감 느낀다. 89년생 악인인 사람은 보따리 싸니 걱정 말라.

말: 42년생 불은 조짐이 있으나 해서 조심~ 54년생 고난은 벗어나 새 길이 열린다. 66년생 관광한 뒤 궁금이 독립을 염심~ 78년생 우유부단한 자신이 필요하다.

양: 43년생 오라는 곳이 많이 바쁘다. 55년생 벗이 어려울 땐 꺼게 슬고 안아주라. 67년생 익숙하지 않는 일은 피하는 게 이롭다. 79년생 속임수 통하지 않으니 삼가라.

원숭이: 44년생 과식과 술로 인한 탈 조심~ 56년생 원칙을 지키면 무방하다. 68년생 작은 행운을 부르니 살고할 것. 80년생 걱정했던 일은 하나씩 풀려나간다.

닭: 45년생 생활이 변동은 좋지 않다. 57년생 자신이 있는 일은 피하는 게 상책~ 69년생 뜻밖의 사람이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81년생 달콤한 문자에 유쾌한 하루~

개: 46년생 어려움 닥가며 해동할 것. 58년생 매매 일은 관망하는 게 이롭다. 70년생 임금심리에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 82년생 궁금한 화초가 꽃을 활짝 피운 격이다.

돼지: 47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59년생 친구와 돈거래는 절단 피하라. 71년생 낙관했던 일에 의외의 어려움 따른다. 83년생 원하는 것만 하려는 생각 버려라.

'골!골!골' 간판 공격수 이름값 '톡톡'

메시 징크스 탈출… 벤제마·판 페르시·네이마르 득점왕 경쟁

2014 브라질월드컵이 개막과 함께 풍성한 골잔치로 초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월드컵 개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대회 첫 경기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득점 감각을 뽐내며 월드컵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를 앞세워 조국에 첫 경기 승리를 안겼다. E조 강호 스위스도 에콰도르에 '역전쇼'를 펼치며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아르헨티나는 1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메시의 결승골을 앞세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2-1로 힘겹게 꺾었다.

유난히 월드컵에서만큼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던 메시가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골잡이 노릇을 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앞서던 후반 20분 곤살로 이과인(나폴리)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문전으로 질주했고 수비수 2명을 따돌리며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메시의 발을 떠난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그물로 빨려 들어갔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강한 압박 수비를 뚫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특히 메시는 골대를 보지 않고 감각만으로 골을 만들어 '축구 천재'임을 입증했다. 이 골로 메시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이어 통산 2호 골을 기록했다.

'아트 사커' 프랑스는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벌어진 E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온두라스를 3-0으로 완파했다. 그 중심에는 2골을 기록한 공격수 벤제마가 있었다.

벤제마는 전반 45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 3분에는 그가 때린 논스톱 슈팅이 온두라스 골키퍼 노엘 바야다레스(올림피아)에게 맞고 골로 연결되는 행운을 잡았다.

벤제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후반 27분 코너킥 이후 흘러나온 볼을 잡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 잔치에 마침표를 찍었다.

또 다른 E조 경기에서는 스위스가 남미의 복병 에콰도르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다.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하리스 세페로비치(레알 소시에다드)의 골이 스위스에 승점 3을 안겼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네덜란드는 간판 골잡이 로빈 판 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르연 로번(바이에른 뮌헨)이 나란히 대회 첫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는 득점 감각을 선보이며 '무적함대' 스페인을 침몰시켰다. 팀 승리와 남아공월드컵에서의 스페인전 설욕까지 한 셈이다.

브라질의 네이마르(바르셀로나)도 개막전에서 2골을 넣으며 득점왕 경쟁에 돌입했다.

/김성훈기자 @metroseoul.co.kr

'망가진' 스페인 체질 개선

칠레 전 앞두고 선수 교체 카시야스 명예회복 선언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이 칠레와의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비센테 델 보스케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 주요 선수 몇 명을 교체할 뜻을 내비쳤다고 16일 보도했다.

델 보스케 감독은 "몇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내가 변화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특정 선수를 비방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지난 14일 2010 남아공월드컵 결승에서 맞붙어 이긴 네덜란드를 상대로 로빈 판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리언 로번(바이에른 뮌헨)에게 두 골씩 내준 끝에 1-5로 완패했다.

대회 기간 중 변화를 외치는 이유로 델 보스케 감독은 "남은 경기는 적고, 우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스포츠인이기에 자신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대표팀에 "우리는 다음 경기에서 싸워야 하고, 인내와 평정심으로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델 보스케 감독은 네덜란드에서 실책을 범한 주장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레알 마드리드)를 교체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델 보스케 감독은 "카시야스는 언제나 주장으로서 국가대표 역할을 잘 해왔다"며 "네덜란드와의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로커로 돌아왔을 때 카시야스는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고 두둔했다. /장성훈기자

스페인 /AP 뉴시스

크로아티아 선수 '누드 파문'

월드컵 이모저모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누드 공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언론 취재를 거부하고 나섰다.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대표팀이 브라질 프라이아 두 포르지의 훈련 캠프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수영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언론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크로아티아의 여러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실린 이 사진에는 수비수 베드란 초를루카와 데얀 로브렌이 호텔 수영장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수영하는 장면에 포착됐다. 이 사진은 2명의 사진기자가 숨어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드란 초를루카

◆콜라시나치 불명예 기록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장 이른 자책골 기록 보유자가 나왔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비수 세아드 콜라시나치가 '월드컵 사상 가장 이른 자책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의 보유자가 됐다. 콜라시나치는 1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경기 시작 2분 8초 만에 자책골을 넣었다. 콜라시나치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프리킥으로 띄운 공을 잘못 건드려 자국 골망을 흔들고 말았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첫 실점이 상대 선수가 아니라 자국 수비수의 발 끝에서 나오는 순간이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파라과이의 카를로스 가마라가 기록한 2분 26초를 18초 앞선다.

◆로번 37㎞ 총알탄 사나이

이 날엔 로번의 전력 질주가 역대 최고 스피드로 측정됐다. 로번은 지난 14일 스페인과의 2014 브라질월드컵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을 넣어 5-1의 완승을 이끌었다. 특히 후반 35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기 직전 스페인의 세르히오 라모스와 경합하며 무려 시속 37㎞의 스피드를 과시했다. 종전 이 부문 최고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의 테오 월콧이 남긴 시속 35.7㎞였다. /장성훈기자

러시아 전을 앞둔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6일 브라질 쿠이아바의 마투그로수 연방 대학(UFMT) 경기장에서 홍명보 감독의 훈련지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개막 엿새 만에 "대~한민국"

H조 조별리그 첫 경기·브라질 두 번째 화력쇼

월드컵 프리뷰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 엿새 만에 태극전사의 첫 경기가 열린다. 스타 플레이어의 활약과 감독의 승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변도 속출하고 있어 흥행보증의 극적 드라마도 기대를 모은다. 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리는 18일에는 한국의 16강 진출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벨기에와 알제리의 경기, 개최국 브라질의 두 번째 축구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벨기에-알제리(1시 미네이랑 주경기장)

H조 최강으로 월드컵 첫 우승을 노리는 벨기에와 알제리의 경기 결과는 한국의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벨기에가 객관적인 전력대로 알제리-러시아와의 1~2차전을 차례로 승리해 준다면 한국과의 3차전에서 여유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예상 베스트 11의 이적료 추정치가 2억2001만 파운드(약 3804억원)를 기록해 3326만 파운드인 알제리의 7배나 될 정도로 화려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에덴 아자르(첼시)·뱅상 콤파니(맨체스터시티)·티보 쿠르투아(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실력이 만개한 황금세대를 앞세운 벨기에는 H조 최강이자 우승까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다크호스다.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지만 '신동' 아자르를 축으로 한 예상 전력은 건재하다.

알제리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앞선 멕시코 1986년 멕시코 대회에서도 마지막 두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다. 벨기에와의 1차전에서 골을 못 넣으면 월드컵 본선 사상 최초로 6경기 연속 무득점의 수모를 당하게 된다.

◆브라질-멕시코(4시 카스텔랑 주경기장)

16일 오후 브라질 상파울루주 이투의 노벨리 주니오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축구 대표팀의 훈련에서 선수들이 손을 이용한 미니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번째 삼바 축구의 향연이 펼쳐진다. 첫 경기에서 크로아티아(18위)를 3-1로 꺾은 브라질과 카메룬을 1-0으로 물리친 멕시코가 A조 1위와 16강 진출 조기 확정을 놓고 대결한다.

승리하고도 오심 논란을 빚은 페널티킥 판정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브라질은 멕시코전에서 진가를 보여줄 태세다. 반대로 석연찮은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을 인정받지 못한 와중에도 빼어난 조직력으로 승리를 거둔 멕시코는 또 한 번 돌풍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다.

두 팀의 대결은 2012 런던 올림픽 결승 팀의 리턴 매치로도 관심을 모은다. 올림픽 축구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브라질은 이번 월드컵을 대비해 당시 최정예 멤버를 출전시켰지만 멕시코 공격수 오리베 페랄타(산토스 라구나)에게 2골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다.

올림픽 은메달을 목에 걸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네이마르(바르셀로나)는 홈 팬 앞에서 명예회복을 노린다.

◆러시아-한국(7시 판타나우 경기장)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원정 8강 진출 목표의 현실성도 셈수 있다.

세계적인 명장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는 유럽 지역 예선에서 이미 본선 활약을 예고했다. 프리메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예선 10경기를 치르면서 20골을 넣었고 실점은 5점밖에 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방패를 어떻게 뚫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다.

이고리 아킨페예프 골키퍼와 세르게이 이그나셰비치·바실리 베레주츠키(이상 CSKA 모스크바) 등 수비진은 카펠로 감독의 '지지 않는 축구'의 핵심이다.

반면 공격진은 백태랑 알렉산드르 케르자코프(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하락세고 신예 알렉산드르 코코린(디나모 모스크바)은 아직 덜 여물었다는 평가가 많다. '대체 불가'라는 평가를 받는 미드필더 로만 시로코프(FC크라스노다르)의 부상에 따른 낙마도 한국으로서는 희소식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 경쟁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 대표팀이 선수구성에 착수했다. 지휘봉을 잡은 류중일 감독(삼성·사진)은 한국시리즈 3연패를 달성한 명장이지만 WBC와 아시아시리즈 등 유난히 국제대회에서 부진했다.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야 명예회복이 가능하다.

류 감독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를 뽑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우등 성적 우선 원칙은 병역 미필자들에게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병역특례 제도가 점수제로 바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태극마크를 노리는 주요 병역 미필 선수들을 살펴보면 외야수 손아섭(롯데)·나성범(NC)·나지완(KIA), 내야수 오재원(두산)·안치홍(KIA)·황재균(롯데)·김상수(삼성), 투수로는 이재학(NC)·한현희(넥센) 등이 꼽힌다.

하나같이 성적표가 좋다. 어수들은 김상수만 제외하고 모두 3할 나늘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손아섭과 나성범과 나지완은 커리어하이 기록에 도전할 정도로 방망이가 뜨겁다. 이재학도 우완투수로 존재감이 높고 한현희는 중간투수로 쓰임새가 높다.

대표후보로 손색이 없지만 모두 태극마크를 달기는 힘들다. 미필자 경쟁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대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선수들과 포지션 경쟁을 벌여야 한다. 같은 실력이면 미필자를 뽑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필자 위주로 구성됐던 2006년에는 도하 참사를 당했다. 경험 부족이 문제였다. 류중일 감독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앞으로 최종명단이 발표되기까지 두 달 남았다. 미필자들의 뜨거운 여름승부가 꽤나 흥미로울 듯하다. /OBS 야구전문기자

류현진 시즌 8승 재도전

'타격의 팀' 콜로라도 잡고 도약하나

'코리안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콜로라도 로키스와 시즌 세 번째 대결을 펼친다.

류현진은 17일 오전 11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질 2014 메이저리그 콜로라도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지난 12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4연승 행진을 마감한 류현진은 이 날 경기를 통해 시즌 8승에 재도전한다.

류현진에게는 최근 한번 끊긴 상승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중요한 일전이다. 왼쪽 어깨 부상으로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류현진은 지난달 22일 뉴욕 메츠전에서 복귀전 승리를 따낸 이후 거침없는 4연승을 달렸지만 12일 신시내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으로 잠시 주춤했다.

콜로라도를 상대로 호투한다면 신시내티전 패전의 아쉬움을 씻고 재도약에 나설 수 있다.

/장성훈 기자 seon@